

5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이념, 허정숙과 이화림

장영은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혁명가 허정숙의 성장

- 아버지 허헌
- 허정숙의 학창 시절
-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02.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활동

-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 미국 체류와 여행기
-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03.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 조선여성의 해방
- 조선의 콜론타이
- 새로운 연애관

04. 허정숙의 정치 활동과 유서

- 해방과 귀국
- 사망과 유서

05. 이화림의 독립운동

- 이화림의 유년 시절
- 상하이의 한인애국단
- 광저우의 중산대학

06. 이화림의 혁명 활동

-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 의과대학 진학

07. 이화림과 중국공산당

- 의과대학 졸업
- 중앙당교와 간부 활동
- 문화대혁명과 퇴직

3차시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학습목차

학습목표

- 허정숙이 주장한 여성해방론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조선여성의 해방
- 조선의 콜론타이
- 새로운 연애관

조선여성의 해방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임무〉

- “그 사회의 생산제도가 여성까지도 노역장에 나와서 노동하여야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까닭으로 그들은 노동부인 등 직업부인으로 사회에 나아오게 된다. 그날부터 그들은 가정파산의 선고를 받게 되고 그들의 자녀는 의지할 곳 없는 무교육의 고아가 되고 말게 되었다. 이어서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설움을 받게 되었다.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임무〉

- 그네들의 받는 바 그 해방은 그들을 위주로 한 해방이 아니오 자본가가 여성을 봉건의 유덕, 굴종과 온순을 이용하여 저렴한 임금에 복종케 하는, 자기이윤을 증진시켜주는 도구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여성에게 해방을 준 것이다.”

《근우》 1호, 1929.5

논설 〈신년과 여성운동- 선구자는 수양에 더욱 노력〉

- “여성은 반드시 먼저 사상혁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는 해부터는 더욱이 여성운동은 사상혁명 그것을 표적으로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여성해방이라든지 여성운동이 촉진되지 못할 것입니다.”

→ 여성해방과 계급해방 주장

《조선일보》 1926년 1월 3일자

허정숙이 제시한 사상혁명

- 남존여비의 폐습 극복
- 여성의 개성 회수
- 교육의 가치 강조

농촌여성을 위한 계몽 운동의 중요성 강조

- 〈향촌에 돌아가는 제군에게〉

“생각해보라. 오늘 조선에는 제군과 같이 학업을 닦게 된 행복스러운 여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첩첩히 쌓여 있는 당면이— 과제가 누구의 힘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다른 이유도 많으려니와 경제적 파멸이 절정에 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굳센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며 또 금전이 있다 할지라도 완고한 부모의 억압에 눌리어 학창에 나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리만큼 전 조선의 읍촌을 물론하고 수많은 널려 있다.

농촌여성을 위한 계몽 운동의 중요성 강조

- 〈향촌에 돌아가는 제군에게〉

여기에 있어 당신네는 가장 행복스러운 자이고 더욱 향촌에서는 귀중한 선각자이다.”

《신여성》 1925년 8월호

개성의 회복과 감정의 자각 요구

- 〈신년과 새결심〉 (《신여성》 1926년 1월호)

조선의 콜론타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Aleksandra Mikhailovna Kollontai, 1872-1952)

- 러시아 출생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외교관, 저술가
- 여권 신장과 자유 연애론을 주장
-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소설
《붉은 사랑》, 《삼대의 사랑》
- 조선의 여성 운동가들에게 영향 미침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콜론타의주의란 어떤 것인가?〉

- “콜론타이 연애론은 연애에 있어서 영육을 둘로 나누고 본능의 향락에만 의의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혼과 육체를 기계적으로 구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애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이고 성적 본능만 기계적으로 만족하면 좋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콜론타주의란 어떤 것인가?〉

- 왜냐하면 연애에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임무를 방해한다. 그 임무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일이다. 반면 연애는 개인의 일이므로 언제까지 성욕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콜론타이 여사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삼천리》 1931년 11월호

허정숙의 자유연애론

- ‘조선의 콜론타이’
- 스캔들로 소비된 허정숙의 결혼과 이혼



1920년대 후반의 허정숙

새로운 연애관

김옥엽, 〈청산할 연애론〉

-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계급적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연애에 대하여도 역시 그러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연애를 계급적 이해(利害)와 관련하여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이 묵은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입장이요 힘인 까닭이다.”

김옥엽, 〈청산할 연애론〉

- “콜론타리즘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생겨난 자유연애론 중에서는 사회 전체의 진보라는 것을 제일의 문제로 하여 관련케 한 점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요 진보적인 연애론이라 할 수 있다.

김옥엽, 〈청산할 연애론〉

- (….)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하여 단순한 일시적 육체의 결합이 합리화되고 그것이 실행된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하여 아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신여성》 1931년 11월호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한 ‘새로운 연애’

- “개인적 열정 속에서 계급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
- “이러한 의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사랑을 희생할 것”
- “이것만을 전제로 해야 우리들은 새로운 연애론을 창조할 수 있을 것”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한 ‘새로운 연애’

- 1920, 30년대 식민지 조선에 소개된 다양한 여성론과 연애론
→ 연애, 결혼, 가족의 근대적 재편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연애를 실천하는 여성들에 대한 배타적 시선

학습정리

- 조선 여성의 교육과 연대를 촉구하며 여성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한 허정숙

다음 차시에서는

- 해방 후 북한에서 허정숙의 정치 활동

SOURCES

[출처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lexandra-kollontay--russianbolshevik00rossuoft.png>

[출처02] 《조선일보》 1928년 1월 3일자 7면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